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교구 안내서



2027 서울 WYD
춘천교구 조직위원회

2433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300
Tel. 033-240-6074 E-mail. wyd2027didcc@gmail.com



2027 서울 WYD
춘천교구 조직위원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교구 안내서



2027 서울 WYD
춘천교구 조직위원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온 세상 젊은이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친교와 일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미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님,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이가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님,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믿음이 저희 가슴에도 타올라
평화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계청년대회의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자비와 평화의 모후이시여,
-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후보성인들이여,
- ◎ 모든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교구 조직위원장 인사말

사랑하는 하느님 백성 여러분, 특별히 2027 세계청년대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여정에 함께하는 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이번 세계청년대회의 주제 성구인 이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건네시는 희망의 말씀이며 초대입니다. 세상의 갈등과 불안, 좌절의 한가운
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또한 그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전쟁과 갈등,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 춘천교구에서 평화
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창조주 하느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생태적 회심의 은총도 함께 나누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춘천교구는 이번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일치·찬미·평화·신앙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춘천교구는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와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생명의 땅인 동시에, 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접경 지역을
품고 있는 교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한편, 갈라진 민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화해와 평화, 생태적 회복을 향한 희망을
함께 키워 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문화와 언어,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
입니다. 경청은 이해의 시작이며, 이해는 평화와 일치의 토대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슴에 품고, 찬미와 평화와 일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이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은총의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교구 조직위원장
김 주 영 시몬 주교



Contents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교구 조직위원장 인사말

I. 세계청년대회 기본 이해 1

1. 세계청년대회의 역사 2

2. 역대 개최지 3

3. 구호와 목적 3

4. 구성 4

5. WYD의 네 가지 핵심 키워드: 만남, 사목, 순례, 선교 5

6. 용어 6

II.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7

1. 개최 의미와 사목적 비전 8

2. 주제 성구 8

3. 로고 8

4. 수호성인 9

5. 대회 구성 및 일정 14

6. 참가 예상 규모 16

III.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 교구대회 17

1. 춘천교구 소개 18

2. 춘천 교구대회 개요 22

3. 춘천 교구대회 일정 23

4. 준비 26

5. 주요 준비 일정 28

6. 교구대회 조직 위원회 29

7. 본당에서의 준비 31

IV.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 교구대회 홈스테이 35

1. 홈스테이의 의미 36

2. 홈스테이의 기대 효과 37

3. 홈스테이 생활 안내 38

4. 교구대회 기간 일정 40

5. 이동 41

6. 지구별 인원 배정 42

7. 본당별 인원 배정 42

8. 기타 안내 42

9. QnA 43



I

세계청년대회 기본 이해

- 1. 세계청년대회의 역사
- 2. 역대 개최지
- 3. 구호와 목적
- 4. 구성
- 5. WYD의 네 가지 핵심 키워드: 만남, 사목, 순례, 선교
- 6. 용어





1. 세계청년대회의 역사

1985년 UN이 제정한 '국제 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ear of Youth)'를 맞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현대 세계의 복음화 사명 수행에 젊은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적 서한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Dilecti Amici)」를 발표하시고, 매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세계 젊은이의 날(World Youth Day)'로 지내자고 선포하셨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결정에 따라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매년 청년들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며, 각 교구가 청년들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 결과 1986년 3월 23일 로마에서 제1차 세계청년대회가 열렸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WYD의 시작입니다.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3~4년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교황님과 함께 모이는 가톨릭 최대의 국제 행사입니다. 교황이 선정한 도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특정한 지역으로 초청하여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 대회에는 교황과 전 세계 주교, 사제, 수도자, 청년들, 그리고 다양한 국제 가톨릭 단체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교 신앙을 기념하는 대규모 축제를 엽니다. WYD를 통해 전 세계의 청년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하나 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한, 국적과 인종을 넘어 친교를 나누며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대회의 주관은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DLFL)'이며, 개최지로 선정된 교구는 교황과 함께 초대에 응답하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위한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지역 조직위원회(LOC)의 책임을 맡게 됩니다.

2. 역대 개최지

1986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서울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32년 만에, 또한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대회입니다.

연 도	개최국	개최도시	참가 인원
1986	이탈리아	로마	약 30만 명
198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약 100만 명
1989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약 40만 명
1991	폴란드	체스트호바	약 160만 명
1993	미국	덴버	약 50만 명
1995	필리핀	마닐라	약 400만 명
1997	프랑스	파리(교구대회 시작)	약 120만 명
2000	이탈리아	로마	약 200만 명
2002	캐나다	토론토	약 80만 명
2005	독일	쾰른	약 120만 명
2008	호주	시드니	약 40만 명
2011	스페인	마드리드	약 200만 명
2013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약 370만 명
2016	폴란드	크라쿠프	약 350만 명
2019	파나마	파나마시티	약 70만 명
2023	포르투갈	리스본	약 150만 명
2027	대한민국	서울	

3. 구호와 목적

1) 대표 구호

“¡Esta es la juventud del Papa!”
(우리는 교황님의 젊은이들!)

2) 목적

젊은이들을 환영하고 신뢰한다.
함께 순례한다.
세계 각국의 가톨릭 공동체와 만난다.

4. 구성

1) 상징물 순례(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세계청년대회에는 'WYD 십자가'와 '로마 백성의 구원' 성모 성화가 늘 함께합니다. 매년 세계청년대회가 열리기까지 이 상징물들은 세계 여러 곳을 순례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젊은이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함께 걸어갑니다.

WYD 폐막 미사에서 교황님은 차기 개최지를 발표합니다. 이후 차기 개최 교구는 WYD 준비 3년 여정의 첫해 '세계 젊은이의 날'에 이 상징물을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이어서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WYD가 시작되기 전까지 세계 여러 나라와 개최국의 각 교구를 순례하며 신앙을 나누게 됩니다.

① WYD 십자가

1983년 '구원의 특별 성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3.8미터 높이의 나무 십자가입니다. 당시 성년을 마치면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 십자가를 젊은이들에게 맡기며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나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과 속량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하십시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후 40여 년 동안 십자가는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구원과 희망이 필요한 곳을 순례해 왔습니다. 1996년부터는 이전 WYD 개최국 청년들이 다음 개최국 청년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하며, 그곳에서 기도를 통한 연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② 성모 성화

'로마 백성의 구원(Salus Populi Romani)' 성모 성화는 2000년 대회년 로마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 밤샘 기도와 교황 미사 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 성화는 사도 요한처럼 자신의 삶에 성모님을 환영하도록 부름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어머니로서 가까이 현존하시는 성모님을 드러냅니다." 라고 하시며 'WYD 십자가'의 순례 여정에 '로마 백성의 구원' 성모 성화를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성모 성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의 성모님께 사도 요한을 맡기신 것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교황의 희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2) 교구대회(DID, Days In the Dioceses)

WYD 본대회에 앞서 개최국의 여러 교구에서 4박 5일 동안 '교구대회'가 열립니다. 이는 본대회 개최 교구를 제외한 지역 교구에서 마련한 고유 프로그램과 젊은이 단체들의 행사로 진행되며, 순례자들은 개최국 각 교구의 신앙, 문화, 역사, 자연유산을 체험하고 지역 교회 공동체와 친교를 나눕니다. 이 기간 대부분 '가정과 본당을 통한 홈스테이'가 이루어집니다.

3) 본대회

본대회는 교구대회를 마친 순례자들이 본대회 개최교구에 모여 5박 6일 동안 열립니다. 본대회는 아래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주요 행사	개막 미사, 교황 환영식, 십자가의 길, 밤샘기도, 폐막 미사
▶ 교리교육 성삼일	각국 주교들이 직접 강의하는 신앙 교육
▶ 청년 참여 프로그램	성소센터, YF (Youth Festival)

또한 대회 기간에 '고해성사(화해센터)'와 '성체조배(Adoration center)'가 상설로 운영됩니다.

5. WYD의 네 가지 핵심 키워드 : 만남, 사목, 순례, 선교

WYD의 본질은 네 가지 핵심 요소, 곧 '만남, 사목, 순례, 선교'로 요약됩니다.

첫째, WYD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만남의 축제입니다. 젊은이들은 서로 만나고, 교회와 교황을 만나며 무엇보다 기쁨 안에서 하느님과 만납니다. 이러한 만남은 가톨릭의 보편성과 시노드 정신을 드러내며,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적 친교의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사목의 차원에서 WYD는 개별적인 행사가 아니라 각 지역 교회의 청년 사목 전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은 교회의 관심과 동행을 체험하고 교회는 그들의 기쁨과 희망,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셋째, WYD는 순례입니다. 단순한 관광이나 모임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내적 회심과 신앙의 새로움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걷는 여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WYD는 선교의 차원을 지닙니다. WYD는 가톨릭만의 행사가 아니라 종교와 세대를 넘어 모든 이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현장에서 참여한 이들뿐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젊은이들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할 그들의 열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WYD는 온 교회를 위한 강력한 선교의 원동력이 되며, 젊은 세대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초대하는 특별한 계기가 됩니다.

6. 용어

정식 명칭	약 식	비 고
세계청년대회	WYD (World Youth Day)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	DLFL (Dicastery for Laity, Family and Life)	교황청 주관 부서
지역 조직위원회	LOC (Local Organizing Committee)	서울대교구
교구대회	DID (Days In the Dioceses)	춘천 교구대회
교구 조직위원회	DOC (Diocese Organizing Committee)	춘천교구 조직위원회
지구 조직위원회	VOC (Vicariate Organizing Committee)	
본당 조직위원회	POC (Parish Organizing Committee)	

II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1. 개최 의미와 사목적 비전
2. 주제 성구
3. 로고
4. 수호성인
5. 대회 구성 및 일정
6. 참가 예상 규모



1. 개최 의미와 사목적 비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의 만남의 축제이자, 교회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알리는 선교의 장이 되며, 희망의 순례 여정이 될 것입니다.

2. 주제 성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약속으로, 십자가상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확신을 전해 줍니다. 그 확신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살아 계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희망과 용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갈등과 불안,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기쁨을 체험하고, 서로의 만남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복음의 기쁨을 삶에서 담대히 실천하는 '희망의 순례자', '용기의 선교사'로 세상에 파견될 것입니다.

3. 로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로고는 '만남과 일치의 축제'를 상징합니다.

중앙의 십자가는 두 획으로 이루어져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역동적인 청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붉은색은 피의 순교 정신을, 파란색은 청년의 열정, 노란색 원은 성령과 그리스도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며, 검은색은 청년들 앞에 놓인 미지의 시간, 그러나 청년들에 의해 밝혀질 어둠을 의미합니다. 전통 서예로 쓴 '서울' 안에는 'W, Y, D'가 함께 드러나, 동서양의 조화 속에서 모든 젊은이가 서울에 모이는 축제를 표현합니다.

4. 수호성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수호성인 소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20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을 모두 잃는 아픔을 겪었고, 젊은 시절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치하의 억압을 겪었다. 이러한 시대적 시련 속 그는 지하 신학교에서 사제 성소를 키워 1946년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후 크라쿠프의 보좌주교와 대주교로 봉사하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가해 현대 교회의 쇄신과 대화의 길에 힘을 보탰다. 1978년 제264대 교황으로 선출된 그는 재임 중 129개국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고, 1984년에는 '세계청년대회'를 창설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도록 초대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성 베드로 광장에서 암살 시도를 겪었는데, 이때 성모님의 모성적 손길로 보호받았다고 고백하며 가해자를 용서했다. 이 일은 그리스도교적 자비와 화해의 정신을 보여주는 깊은 증언으로 남아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2005년 선종하여 2014년 시성되었으며, 교회는 그의 축일을 10월 22일에 기념한다.

수호성인 상징물 주교 지팡이 (Crozier)

주교 지팡이는 주교의 전례 표징 가운데 하나로, 성령께서 맡기신 양 떼를 보호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직무를 상징한다. 특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주교 지팡이는 독특한 십자가 형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가 보여준 목자의 영성과 사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지가 되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동료 순교자들

수호성인 소개

성 김대건 안드레아는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다. 1821년에 태어나 15세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다. 1845년 상하이에서 사제품을 받은 뒤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와 함께 작은 목선 라파엘 호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박해 시대 선교사들이 조선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는 입국로를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그러나 곧 체포되어, 사제품을 받은 지 1년, 귀국한 지 6개월 만인 1846년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깊은 신앙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한국 교회의 기초를 세운 성 김대건 안드레아는, 1984년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서울에서 거행한 시성식을 통해 103위 한국 순교 성인 중 한 분으로 시성되었다.

수호성인 상징물 적색 영대

‘적색 영대’는 한국인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순교를 상징한다.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갖은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의 영광에 이른 성인은 옥중에서 박해 중인 조선 교우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남기는 등,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드러냈다.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수호성인 소개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는 185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수도 생활을 갈망했으나,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녀회 입회를 거절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굳은 신앙과 열정으로 이를 이겨내고,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으며, 마침내 1880년 예수 성심 선교 수녀회를 설립했다. 본래 중국 선교를 희망했으나, 교황 레오 13세의 뜻에 순명하여 소외된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 그는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대서양을 30차례나 건너며 미국 전역과 남미, 유럽에 걸쳐 고아원과 학교, 병원, 수녀원 등 67개의 기관을 세웠다. 1917년 선종한 카브리니 성인은 1946년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최초로 시성되었으며, 오늘날 이민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성인의 기념일은 12월 22일이다.

수호성인 상징물 증기선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는 더 많은 이웃을 돌보기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30차례나 횡단했다. 증기선은 성인의 선교 열정과 하느님께 굳은 신뢰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자신을 맡긴 성인의 믿음을 드러낸다.



성 요세피나 바키타

수호성인 소개

‘희망의 증인’ 성 요세피나 바키타는 1869년 수단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납치되어 ‘행운 또는 행복’이라는 뜻의 ‘바키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노예로 팔려 다니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 이후 이탈리아로 건너간 성인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참된 존엄과 자유를 되찾았다. 1890년 세례를 받으며 ‘요세피나’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1893년 카노사 애덕의 딸 수녀회 (Canossian Daughters of Charity)에 입회했다. 그는 평생 수도원의 문지기과 요리사 등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며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를 증언했고, 1947년 선종한 뒤 2000년 시성되었다. 오늘날 그는 ‘아프리카의 꽃’이자 수단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으며, 그의 축일인 2월 8일은 전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 인신매매 반대 기도의 날’이기도 하다.

수호성인 상징물 **끊어진 쇠사슬**

‘끊어진 쇠사슬’은 성 요세피나 바키타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음을 상징한다.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에 이끌려 미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악의 사슬을 끊어낸 신앙의 여정을 뜻한다. 성인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사슬을 끊어낸 신앙인의 모범이며, 우리 시대에 참된 자유와 희망을 전한다.



성 가롤로(카롤로) 아쿠티스

수호성인 소개

성 카롤로 아쿠티스는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인터넷의 수호성인’으로 불리며 디지털 시대에 신앙을 증언한 젊은 성인이다. 1991년 영국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에서 성장한 그는 “성체는 하늘나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라고 고백하며, 7살 때부터 매일 미사와 성체조배를 삶의 중심에 두었다. 특히 뛰어난 컴퓨터 재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성체 기적을 집대성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다양한 신앙 교육 자료를 디지털 매체로 널리 알리는 데 헌신했다. 또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던 그는, 2006년 급성 백혈병으로 선종하기까지 자신의 고통을 교회와 교황을 위해 온전히 봉헌했다. 본인의 소망대로 아시시에 안치된 그는 2025년 시성되었으며, 기념일은 10월 12일이다.

수호성인 상징물 **컴퓨터**

컴퓨터는 디지털 시대 젊은 성인 카롤로 아쿠티스를 상징한다. 성인은 하느님께 받은 특별한 능력으로 하느님과 성체에 대한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했다. 그의 모범은 오늘날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디지털 선교사의 사명으로 초대한다.

5. 대회 구성 및 일정

1)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순례

WYD 파견 미사에서 교황님이 차기 개최지를 발표한 후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차기 개최 교구에 전달됩니다.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WYD가 시작되기 전 세계 몇몇 국가와 개최 국가의 전 교구를 순례합니다.

춘천교구 순례 일정 : 2026년 2월 25일(수) ~ 3월 25일(수)

2) 춘천 교구대회(4박 5일)

	7/29(목)	7/30(금)	7/31(토)	8/1(주일)	8/2(월)
오 전	입국 및 이동	지구 단위 행사	춘천 이동	본당 단위 행사	송별
오 후			교구 단위 행사	자유 시간	본대회 파견
저 녁	환영		가정 복귀		

3) 본대회(5박 6일)

	8/3(화)	8/4(수)	8/5(목)	8/6(금)	8/7(토)	8/8(주일)
오 전	도착	교리 교육			밤샘기도 장소로 이동	폐막미사
오 후	젊은이 축제(Youth Festival) 및 성소센터					교황님과 봉사자의 만남
저 녁	개막미사	젊은이 축제	교황님 환영 행사	십자가의 길	밤샘기도	-

본대회 주요 프로그램은 성주간의 흐름을 따릅니다.

▶ 개막미사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전례로 본대회를 개최하는 교구장 주교님이 주례합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순례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제대 옆에 안치되며 본대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 교황님 환영 행사(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교황님과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으로, 환대와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 기도로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교황님의 격려와 강론, 젊은이들이 준비한 환영 행사가 어우러져 특별한 의미를 더합니다.

▶ 교리 교육(최후의 만찬 때의 고별 담화, 성삼일)

본대회 기간 3일간 매일 오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본대회에서 실시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언어권 별로 주교님의 교리 교육이 진행되며, 주교님은 젊은이들의 고민과 질문에 경청하며 교회를 대표해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 십자가의 길(주님 수난 성금요일)

교황님의 성호경과 함께 시작되며, 각 처에 대한 소개와 묵상기도가 진행됩니다. 연극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예수님의 수난 여정에 관한 각 처의 내용을 표현하며, 신앙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체험합니다.

▶ 밤샘 기도(파스카 성야)

모든 순례자는 파견 미사 전날 미사 장소에 모여 밤샘 기도를 합니다. 교황님과 함께 성체조배와 공동 기도를 바치며 영적 친교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 폐막미사(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밤샘기도를 지나 주일이 되면 파견 미사를 봉헌합니다. 순례자들은 폐막미사를 통해 WYD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삶의 자리로 파견됩니다.

▶ 사목 프로그램

젊은이 축제	교리교육과 주요 프로그램을 제외한 오후와 저녁 시간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술적, 종교적, 영적인 성격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젊은이들은 콘서트, 전시회, 워크숍, 스포츠 경기,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소 센터 (성소 박람회)	젊은 순례자들이 부르심을 더욱 깊이 식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다양한 단체, 공동체, 수도회 등에서 운영하는 부스가 열립니다. 순례자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성소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해 성사	순례자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제들은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도록 이끍니다.
교황님과 봉사자의 만남	폐막미사 후 교황님과 봉사자들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 자리에서 교황님은 대회를 위해 애쓴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축복해 주십니다.

4) 후속 모임

각 교구는 성지순례, 미사, 교리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구 젊은이들에게 WYD의 경험과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기회를 가집니다.

6. 참가 예상 규모

교구대회	6~10만 명
본대회	30~40만 명
폐막미사	100만 명(한국 신자들의 참여)
춘천 교구대회 참가 예상 인원	1천 명

Ⅲ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 교구대회

1. 춘천교구 소개
2. 춘천 교구대회 개요
3. 춘천 교구대회 일정
4. 준비
5. 주요 준비 일정
6. 교구대회 조직 위원회
7. 본당에서의 준비



1. 춘천교구 소개

1) 성지

① 화현 이벽 성지(포천시 화현면 화동로477번길 31)

화현 이벽 성지는 한국 천주교회 창립의 주역인 이벽 요한 세례자의 생가터와 진묘터를 기념하는 곳이다. 2023년 5월 20일 춘천교구 성지로 공식 선포되었으며, 그의 신앙과 삶을 기억하는 순례지로 자리하고 있다.

이벽은 1784년 조선 최초의 세례식에서 '요한 세례자'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이후 조선 최초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한국 천주교회의 기초를 세웠다. 1785년 을사 추조 적발 사건 이후 박해가 시작되자, 이벽은 가족들의 배교 강요 속에서 부모에 대한 효와 하느님에 대한 신앙 사이에서 깊은 고뇌를 겪었으나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31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죽음은 순교에 버금가는 신앙의 증거로 평가된다.

다블뤼 주교는 이벽을 "조선에 천주교를 시작하도록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도구"라고 평가하였다. 평신도 신분으로 한국 교회 창립에 헌신한 그는 오늘날에도 한국 천주교회의 중요한 창립 인물로 기억되고 있으며, 현재 한국 교회는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의 시복·시성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② 포천 순교성지(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64)

포천 순교성지는 복자 홍인 레오의 순교터가 있는 곳으로, 춘천교구에서는 2014년 9월 27일 이곳을 교구 순교성지로 선포하였다.

포천에서 태어난 홍인은 1791년 아버지 홍교만과 함께 교리를 접하며 천주교 신앙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1794년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뒤, 아버지와 함께 포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 홍교만 역시 포천에서 천주교를 접하고 아들 홍인을 통해 교리를 더욱 깊이 깨달아 주문모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1801년 신유박해 때 홍교만은 체포되어 의금부에서 문초를 받은 뒤 서소문에서 순교하였고, 함께 체포된 홍인은 포천으로 이송되어 1802년 순교하였다. 홍인과 홍교만의 입교 선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들 부자가 함께 신앙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여 포천 지역에 천주교 신앙을 널리 전파했다는 사실이다.



③ 양양 성당/순교자 이광재 티모테오 신부(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7)

양양 성당은 1921년 5월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사목을 받아오다가, 1921년 최문식 신부가 양양 싸리재에 자리를 잡으면서 본당이 되었고 이후 양양읍 서문리로 이전하여 1922년 '지극히 거룩한 예수성심'을 주보로 한 성당을 건립하였다. 1936년 대홍수로 성당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일제의 불허로 지연되었고, 이후 이광재 신부가 성당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성당은 전소되었고, 1952년 원 파트리치오 신부가 재건을 시작하여 1954년 현재의 성당을 축성하면서 주보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로 변경하였다.

양양 성당의 순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이광재 신부이다. 한국 전쟁 중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의 월남을 도우면서도 본인은 신자들의 곁을 지키다가 북한 교회의 신자들을 돕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체포되어 원산 방공호에서 총탄을 맞고 순교하였다. 죽음 직전까지도 다른 이들을 돌보려 했던 그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착한 목자'가 되었으며 2000년부터 양양 본당 신자들이 이광재 신부를 추모하여 시행하던 도보순례를 2009년부터는 교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7년 9월 17일 당시 춘천교구장 김윤희 루카 주교는 모든 사제들의 모범인 이광재 티모테오 순교자가 전쟁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돌보던 어린양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끝까지 목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의 삶을 살다가 하느님의 품에 안긴 순교자의 정신이 깃든 교구내 중요한 신앙의 터전을 성지로 선포하였다.



④ 죽림동 순교성지/교구 성직자 묘역(춘천시 약사고개길 23)

죽림동 순교성지는 2017년 9월 17일 춘천교구 성지로 선포되었다. 당시 춘천교구장 김윤희 루카 주교는 한국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신앙과 사목의 소명을 끝까지 지키며 복음적 삶을 실천한 순교 사제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죽림동 주교좌 성당의 순교자 묘역을 교구 성지로 지정하였다.

이곳에는 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소속 고 안토니오(Anthony Collier), 라 파트리치오(Patrick Reilly), 진 야고보(James Maginn) 신부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으며, 북한 지역에서 순교하여 유해를 모실 수 없었던 백응만 다마소, 김교명 베네딕토, 이광재 티모테오, 손 프란치스코 신부의 가묘도 조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일곱 명의 순교 사제는 한국전쟁과 해방공간에서 북한 공산주의에 의해 희생된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시성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2) 순교 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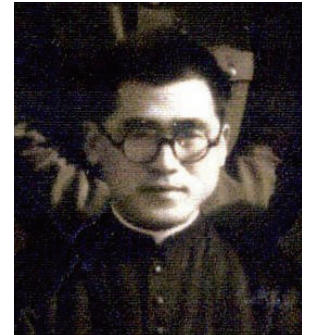
① 이광재 티모테오(李光在, 1909-1950)

1936년 사제품을 받고 풍수원과 양양 본당에서 사목하였다. 해방 후에는 이북 지역 신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1950년 6월 목자 없는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북으로 갔다가 체포되어 원산 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9일 순교하였다.



② 백응만 다마소(白應萬, 1919-1950)

1945년 사제품을 받고 혜화동 본당 보좌로 사목하였다. 이후 공산 치하의 평강 본당 주임으로 자원하여 부임해 위험 속에서도 신자들을 돌보았다. 1949년 체포되어 혹독한 박해를 받았으며, 평양 감옥에서 1950년 초 병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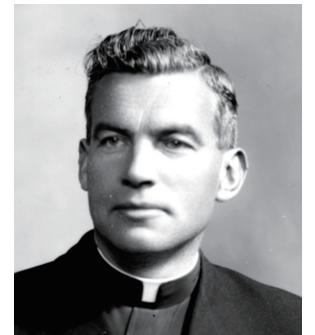


③ 김교명 베네딕토(金敎明, 1911-1950)

춘천교구 첫 번째 사제로 1939년 서품되었다. 평양교구 의주 본당 주임으로 사목하며 순교 신심을 널리 전하고 신자들을 돌보았다. 공산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신자들을 떠나지 않았으며, 1950년 6월 26일 체포된 뒤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

④ 고 안토니오(Anthony Collier, 1913-1950)

1939년 한국에 입국하여 강릉과 횡성 본당에서 사목한 뒤, 1950년 소양로 본당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피신 권유를 거절하고 본당을 지키다가 공산군에게 체포되었다. 체포 과정에서 복사 김경호 가브리엘을 보호하여 그의 생명을 구했으며, 1950년 6월 27일 피살되었다.



⑤ 진 야고보(James Maginn, 1911-1950)

1936년 입국 후 평강, 홍천, 삼척 등에서 사목하였다. 가난한 이들과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에도 성당을 지키며 신앙을 증거하다가 1950년 7월 2일 체포되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7월 4일 순교하였다.

⑥ 라 파트리치오 (Patrick Reilly, 1915-1950)

1948년 입국하여 원주 본당과 묵호 본당에서 사목하였다. 한국 전쟁 당시 “양들을 버리고 목자가 혼자 도망갈 수 없다”라며 피란을 거부하고 신자들과 함께 남았다. 은신 중 체포되어 강릉으로 이송되던 중 옥계면 밤재골에서 순교하였다.



⑦ 손 프란치스코 (Francis Canavan, 1915-1950)

1949년 입국하여 한국어를 배우며 사목을 준비하였다. 전쟁 중 피란 권유를 받았으나 “고해성사라도 주겠다”라며 남아 있었다. 이후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죽음의 행진’에 끌려갔으며, 그 과정에서도 동료 포로들을 돌보았다. 압록강 수용소에서 폐렴으로 선종하였다.

2. 춘천 교구대회 개요

1) 춘천 교구대회 소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 교구대회는 남북 분단의 아픔을 가진 교구로서 평화와 화해를 희망하고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과 피조물, 그리고 하느님과 깊은 연결을 체험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또한 지역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나며, 복음 안에서 서로를 환대하고 하나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 춘천 교구대회의 핵심 가치

춘천 교구대회의 핵심 가치인 일치·찬미·평화·신앙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 여정의 기둥입니다.

일치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여정입니다. 환영과 경청, 친교를 통해 우리는 모두 하느님 백성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찬미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여정입니다. 춘천교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를 찬미하며, 모든 피조물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생태적 회심을 살아갑니다.

평화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품고 있는 춘천교구에서 우리는 남북의 평화와 세상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묵상합니다.

신앙은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말씀과 성사,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은 하느님과 더욱 깊이 만나고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 교구대회는 **“말씀 안에서 서로 일치하고 피조물을 통해 주님을 찬미하며, 평화의 일꾼으로서 신앙을 성숙시키는 순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례 여정을 통해 청년들은 희망의 증인으로 성장하며, 교회와 세상을 향해 복음의 기쁨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3) 기대 효과

춘천교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 교구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 ☒ **신앙의 성장** : 말씀과 성사, 기도 안에서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희망의 증인으로 성장합니다.
- ☒ **공동체의 일치** : 본당과 지구, 교구 공동체가 함께 순례자들을 환대하며 교회의 일치를 체험합니다.
- ☒ **평화와 생태의 실천** : 분단의 아픔 속에서 평화를 기도하고, 회칙 ‘찬미받으소서’ 정신을 바탕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삶을 배웁니다.
- ☒ **보편 교회의 체험** :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신앙과 문화를 나누며 교회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경험합니다.
- ☒ **지속되는 선교의 열매** : WYD를 통해 맺어진 만남과 우정이 이어져,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선교의 주체로 성장합니다.

3. 춘천 교구대회 일정

1) 첫째 날 (7/29) ‘일치의 날’ : 환영과 만남

전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과 신자들이 서로를 환영하며,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넘어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체험하게 됩니다.

- ☑ 지구별 거점 본당으로 이동 및 환영, 홈스테이 가정과 만남
- ☑ VOC는 순례자들을 맞이할 거점 본당을 선정하고, 상황에 맞춰 분배
- ☑ 지구 혹은 본당에서 교우들과 함께 환영하는 예식(환영 미사 등) 거행
- ☑ 환영 저녁 식사는 지구, 본당 혹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준비

순례자 이동 방법

순례자는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공항버스, ITX, KTX를 이용하여 지구별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각 지구에서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거점 본당 및 공동 숙소로 이동합니다. 각 지구에서는 지정 장소에 인원(명단) 확인 및 안내 봉사자를 최소 2인 이상 배치하여 순례자를 맞이합니다.

지 구	교통 수단	출발지	도착지(지정 장소)
춘천 / 남춘천 지구	공항버스	인천공항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지하철 및 ITX, 경춘선	용산역/청량리역	춘천역
중부 지구	공항버스	인천공항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
	지하철 및 ITX, 경춘선	용산역/청량리역	춘천역
서부 지구	공항버스(7600동송)	인천공항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
			신철원 터미널
영동 지구	공항버스	인천공항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공항철도 및 KTX	서울역	강릉역
영북 지구	공항버스	인천공항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공항철도 및 KTX	서울역	강릉역

- ☑ 셔틀버스 운행은 지자체 협조 혹은 업체를 섭외하여 운영하며, 순례 단체장과의 소통을 통해 환영 장소와 셔틀버스 배차 시간 조정(단체별 일괄 이동)
- ☑ 미리 도착한 순례자들은 주변을 관광하며, 셔틀버스 시간에 맞추어 탑승하고 이동하도록 안내

2) 둘째 날(7/30) '평화와 찬미의 날': 지구 단위 행사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지구별 평화 순례와 평화 기원 미사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체험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하며 생명과 창조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 ☑ 철원·양구·인제·고성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안보 관광 및 평화 순례
- ☑ 각 지구별로 평화기원 미사를 봉헌하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
- ☑ 성지 및 주요 순례지에 언어권별 해설사를 배치하여 순례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3) 셋째 날(7/31) '신앙의 날': 교구 단위 행사

전 교구민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나 된 교회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특별히 이날은 청년들만의 행사를 넘어, 교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신앙 축제로 마련됩니다. 또한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과 신앙 체험 프로그램, 공연과 부스 체험 등이 진행되어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과 만남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 ☑ 교구장 주교 주례의 미사 참례
- ☑ 참가자 및 방문객들은 리플렛 및 QR 코드를 통해 행사 일정과 장소 등 확인
- ☑ 한국 문화 체험, 참여형 부스 등 다양한 체험 활동

4) 넷째 날(8/1) '공동체의 날': 본당 단위 행사

각 본당과 지구 공동체 안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교중 미사를 봉헌하고, 마지막 친교의 시간을 나누며 WYD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 ☑ 홈스테이 가정 소속 본당에서 주일 교중 미사 참례
- ☑ 미사 후 본당 공동체와의 만남 진행
- ☑ 자유 여행과 쉼
- ☑ 저녁 시간 지구 혹은 본당 차원의 파티

5) 다섯째 날(8/2) '파견의 날': 환송

정해진 시간에 지구 혹은 본당 차원에서 본대회로 이동하는 순례자들을 환송합니다.

- ☑ 단일 국가 혹은 특정 교구 순례자들이 여러 본당 혹은 공동 숙소로 흩어진 경우, 지정 장소로 집결하여 환송
- ☑ 공동 숙소에 머문 순례자들은 해당 숙소 봉사자들이 환송

4. 준비

춘천교구는 현재 다양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 WYD 발대 미사와 상징물 순례를 진행했으며, 영적 준비와 봉사자 모집 및 양성, 춘천교구 청년대회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영적 준비

① 묵주기도 10억 단 봉헌 운동

서울대교구 WYD 지역 조직위원회(LOC)에서는 영성운동의 일환으로 '묵주기도 10억 단 봉헌 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춘천교구도 마음을 모아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② 청년 찬양 성시간

춘천교구 청년 찬양 성시간은 2024년 9월 처음 시작되었으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청년들이 신앙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된 기도 프로그램입니다. 춘천교구는 "WYD의 핵심은 결국 청년들의 신앙"이라는 취지 아래 성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성시간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9시 한반도 평화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함께 기도하며 세계청년대회를 영적으로 준비하고, 신앙의 중심인 성체 성사를 통해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화와 희망의 삶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③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 봉헌

춘천교구는 2026년 1월 WYD 발대 미사를 시작으로 교구 내 모든 본당과 기관의 미사 중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함께 바치며 청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것은 물론, 기도를 통해 교구 구성원 모두가 세계청년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영적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봉사자 모집 및 양성

① 청년 봉사자

춘천교구는 '세계청년대회'라는 이름에 맞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 교구대회를 청년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봉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세계청년대회와 마찬가지로 나이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봉사의 마음을 가진 모든 청년들을 초대했습니다. 현재 90명이 넘는 봉사자가 2026년 5월 기준, 총 10회의 교육과 연수를 통해 봉사자 양성을 마친 상태이며, 이들은 교구 WYD 관련 행사와 실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서 교구대회와 각 지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구대회가 끝나면 봉사자들은 순례자가 되어 서울 본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② 언어 봉사자

교구대회에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순례자들과의 소통이고, 그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춘천교구는 실제 교구대회 시 현장에서 통역을 도와주실 언어 봉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 베트남어, 네팔어 등 총 12개 언어 분야의 봉사자 4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번역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잇고, 순례자와 춘천교구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의 다리이자 선교적 동반자입니다. 낯선 땅을 찾은 순례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환대의 손길을 내미는 이웃이 되고, 교구민에게는 세계 교회를 만나는 창이 되어 줄 것입니다.

③ 홈스테이 가정 봉사자

춘천교구가 교구대회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홈스테이(가정 체험)'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는 청년 순례자들은 다른 언어와 문화의 성가정에서 환대받고, 신앙으로 하나 되며 친교를 이루는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순례자들을 가정으로 맞이하는 일은 단순한 숙식 제공이 아닌, 신앙과 문화를 나누는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3) 2026 춘천교구 청년대회(Pre-WYD)

춘천교구 청년대회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춘천교구에서 개최되는 교구 차원의 신앙 축제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 교구대회의 중심이 될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WYD의 영성과 정신을 미리 체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청년대회는 부스 체험과 공연, 교리 교육, 성체 현시, 미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의 보편성과 공동체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청년대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청년들이 WYD의 정신과 메시지를 삶으로 받아들이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가는 소중한 신앙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4) 홍보



인스타그램

춘천교구는 SNS를 자주 이용하는 청년들에 맞추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춘천교구의 WYD 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행사 및 모집 홍보, 모임 실황, 각종 쇼츠 등이 업로드 됩니다.



포스터

홈스테이, 봉사자 등을 모집하고,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여 인쇄하여 배부하고,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WYD 안내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포함한 세계청년대회의 소개와 춘천 교구 대회의 안내, 준비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책자입니다.



리플렛

신자분들께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춘천 교구대회를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게 각 본당에 배부하는 간단하지만 명확한 안내 자료입니다. 해외 순례자들을 위한 영문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5. 주요 준비 일정

일 시	내 용
26년	7월
	• WYD 홍보 자료 배포 • Pre - WYD: 춘천교구 청년대회(7/31~8/2) • 교구대회 해외 순례자 접수(~27년3월) • 교구대회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체 구성
	8월
	• 홈스테이 상시 모집(~27년3월) • 순례자 신청 및 안내
	9월
	• 제2차 국제 준비 회의 DID EXPO • 교구대회 지자체 예산안 제출 • WYD 청년 봉사자 모임
	10월
	• 춘천교구 WYD 안내서 및 리플렛 배포 • 교구 사제 연수 중 진행 사항 논의 • 홈스테이 비대면 교육(~12월) • 본당 조직위원회(POC) 구성 및 지구 단위 프로그램 기획
	11월
	• 지자체 협의 및 안전 계획 수립 • WYD 청년 봉사자 모임
	12월
	• 본당 조직위원회 구성 완료 • 교구대회 전체 프로그램(지구 프로그램 포함) 최종 완성

일 시	내 용
27년	1월
	• 춘천, 원주, 안동 교구 청년 모임(1/24) • 지구 단위 홈스테이 대면 교육(~3월)
	2월
	• 찬미받으소서 교육 및 포럼(2/27) • 홈스테이 배정(~4월)
	3월
	• 교구대회 해외 순례자 접수 마감 • 교구대회 홍보(~7월)
	4월
	• 홈스테이 배정 완료 • 본당 WYD 분과장 및 사목회장 연수(4/3~4)
	5월
	• 본당 봉사자 교육 • 지구 봉사자, 홈스테이 가족 만남 • WYD 문화 공연
	6월
	• 순례자 키트 및 기념품 배부
	7월
	• 최종 점검 • 춘천 교구대회(7/29~8/2)
	8월
	• WYD 본대회(8/3~8) • 평가 및 후속 프로그램 • 청년 복음화 피정(8/28~29)
	9월
	• 2027 교구대회(DID) 백서 발간 후 DOC 해단 • 교구 청년사목 역량 강화(지속)

6. 춘천 교구대회 조직위원회

1) DOC(교구 조직위원회)



2) VOC (지구 조직위원회)

지구	위원장(지구장)	실무 사제	평신도 대표
춘천	Fr.이명호 베드로	Fr.김현국 요한사도	
남춘천	Fr.현광섭 프란치스코	Fr.박종수 요한세례자	
중부	Fr.이지철 암브로시오	Fr.김효식 이냐시오	
서부	Fr.최창덕 프란치스코	Fr.박순호 도미니코 Fr.박관옥 안토니오	
영동	Fr.오세민 루도비코	Fr.강재원 미카엘	
영북	Fr.엄기선 베네딕토	Fr.이상협 그레고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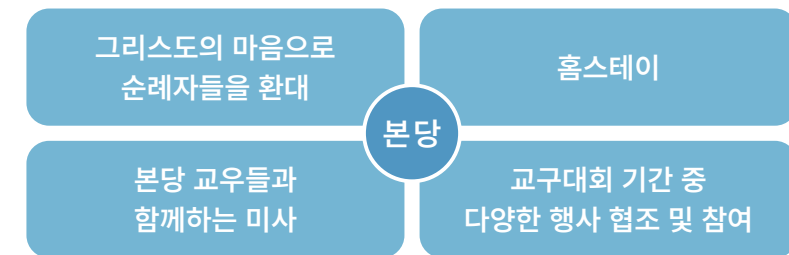
2) POC(본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본당 주임 사제
부위원장	본당 보좌 사제 혹은 본당 수녀
협력 수도자	본당 수녀
집행위원장	사목회장
WYD 분과장	청(소)년 분과장 등
각 분과	본당 내 분과(재정 분과, 시설 분과, 전례 분과, 홍보 분과 등)

7. 본당에서의 준비

1) 본당의 역할

본당은 WYD 순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본당은 순례자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돕는 WYD의 핵심 주체가 됩니다.



2) 본당의 추진 과제

- ☒ 세계청년대회 본당 조직위원회(POC) 구성과 운영
- ☒ 홈스테이 가정 모집과 운영
- ☒ 본당 자체 프로그램 준비
- ☒ 본당의 지원 : 기부와 후원, 기도 운동 등

3) 교구 조직위원회 활동 협조

- ☒ 교구 봉사자(청년, 홈스테이, 언어 등) 모집 협조
- ☒ 교구 프로그램 참여(순례, 축제, 파견 미사 등) 독려
- ☒ 청소년, 청년 본대회 참가 홍보

4) 본당 조직위원회(POC) 구성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당 차원의 구체적인 준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교우가 함께하는 시노드적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 WYD 분과 설립 및 운영

본당 사목회 내에 'WYD 분과'를 설치합니다. 본 분과는 교구 조직위원회와 본당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됩니다. 조직의 구조는 주임 신부님의 사목 방향과 본당의 인적 자원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타 본당과 연합 가능)

예시

POC 조직위원장	본당 사제 전체 본당 행사 총괄
WYD 분과장	본당 행사 기획, 조정 및 교구와의 연결 창구 참가 순례자 단체와 소통 • 홈스테이 가정 담당 - 홈스테이 가정 모집 및 홍보 - 홈스테이 가정 관리 및 순례자 배정 • 순례자 관리 담당(동반팀) - 청(소)년 분과장 및 청년/청소년 대표 - 순례자 인솔 및 이동 안내, 관리 • 안전 관리 담당 - 순례자 및 본당 신자의 안전 관리 - 의료, 응급 상황 관리 및 대응 등 • 지원 담당 - 식사, 간식, 차량 지원 등
전례 분과	본당 전례(미사, 기도 등) 담당
기타 분과	재정 분과, 홍보 분과, 시설 분과 등

5) 본당 프로그램 준비

7월 29일(목)	지구별 거점 본당에서 환대, 본당 환영식, 홈스테이 안내
7월 30일(금)	지구 프로그램 참여 및 인솔, 지구/본당 차원의 저녁 시간
7월 31일(토)	교구 프로그램 참여 및 인솔, 본당(가정) 복귀
8월 1일(주일)	순례자들과 함께 본당 교중 미사, 본당 식사, 자유 시간
8월 2일(월)	환송 및 본대회 이동 안내

6) 본당의 기대 효과

01	본당 청년 사목 활성화	WYD 준비 과정 자체가 본당 젊은이 사목을 활성화하고, 젊은 이들이 신앙을 깊이 체험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계기가 됩니다.
02	세대 간 연대 강화	홈스테이를 통해 어른 세대가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른 세대가 젊은이들을 환대하는 법을 배우고, 세대 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03	교회 공동체 성장 및 쇄신	WYD 준비는 모든 신자가 함께 성장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사목 여정입니다. 교회에 젊고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04	평신도(청년) 리더 양성	젊은이들이 스스로 교회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05	신앙 체험 심화 및 성소 개발	WYD를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깊이 체험하여 성소(사제, 수도자, 혼인)를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06	사제 및 교우들의 청년 사목 관심 증대	WYD를 준비하면서 사제와 교우들이 청년 사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IV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춘천 교구대회 홈스테이

1. 홈스테이의 의미
2. 홈스테이의 기대 효과
3. 홈스테이 생활 안내
4. 교구대회 기간 일정
5. 이동
6. 지구별 인원 배정
7. 본당별 인원 배정
8. 기타 안내
9. QnA

1. 홈스테이의 의미

홈스테이는 본당 공동체가 함께 해외 순례자를 맞이하며 가정교회와 보편교회를 체험하는 사목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본당 공동체의 활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루카 10,38

☑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20)라는 말씀처럼, 순례자를 맞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 신앙 중심의 동반

무엇을 먹이고 어디서 재우느냐보다, 순례자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찬사입니다.

☑ 우리 공동체를 위한 홈스테이

순례자들은 잠시 우리 교구, 우리 본당에 방문하여 보편 교회를 체험하는 것일 뿐,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교우들입니다. 홈스테이를 통해 우리 교우들이 가정 성화와 공동체 활성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 순례자들에게 새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외국 청년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고유의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성당을 찾는 소박한 일상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봉사 가정의 새로운 신앙 체험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청년들을 맞이하는 과정은 곧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체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작은 봉헌, 큰 선물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자 가정의 봉헌은 순례자와 교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은 WYD 전체를 지탱하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 홈스테이의 기대 효과

1) 본당의 공동체 활성화

- **공동의 목표 의식**
전 신자가 환영 행사와 대청소 등을 준비하며 소속감이 고취됩니다.
- **환대 문화 정착**
해외 순례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은 본당 내 소외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를 줍니다.
- **참여의 외연 확대**
구역·반 중심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재워주기, 아침 식사 차리기, 차량 봉사 등) 평소 활동이 적었던 교우들도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우 1

“저는 일찍 출근해서요. 재워줄 수는 있지만 아침밥 제공이 어려워요.”



교우 2

“그러면, 제가 일찍 일어나니 아침밥을 제가 제공할게요!”



교우 3

“저는 아이가 있어 숙식 제공이 모두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참가자들을 성당에 데려다 줄 수 있어요!”

2) 신앙 체험

- **아브라함의 환대(창세 18,1-15) 재현**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맞이했던 아브라함처럼, 일상 속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 **영적 동반과 쇠신**
홈스테이 가정은 순례자들의 열정적인 신앙 체험을 공유하면서 가정 안에서 신앙을 깨우고, 순례자들은 홈스테이 가족의 따뜻한 배려로 하느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 **영적 유대**
세계청년대회와 순례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홈스테이 가정은 그들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 영적 유대는 대회가 끝난 뒤에도 지속되며, 홈스테이 가정에 “교회는 나 혼자아닌,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보편 교회의 감각을 심어줍니다.

3) 보편 교회 체험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같은 신앙을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해외 순례자들의 고유한 전례와 기도 문화를 접하며 교회의 풍요로움을 목격합니다.

4) 자녀들의 국제 교류

- 신앙 안에서 성장한 외국 청년들과 교류하며 국제적 시야와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 대회가 끝난 후에도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으며, 훗날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 연결고리가 되는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3. 홈스테이 생활 안내

1) 생활 및 안전 가이드

① 가정

순례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호텔 같은 시설이 아니라, 가족들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마음입니다. 평소처럼 편안하게 그들을 맞아주세요.

공간 보장	개인별 최소 1.5m ~ 2m의 공간을 제공하며, 가급적 분리된 공간을 권장합니다. 침대 제공은 필수가 아닙니다.
프라이버시	순례자의 허락 없이 가방을 열거나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성 원칙	반드시 동성 2명 이상을 초대해야 하며, 홈스테이 가정이 남성 또는 여성 만인 경우, 이성을 초대할 수 없습니다.
휴식 배려	대회 일정으로 지친 청년들에게 밤늦은 대화나 관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안전 규정	순례자의 안전과 다음 날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통금(00시~06시)을 지켜 주십시오. 지나친 주류 제공은 금지합니다.
응급 대응	건강 이상, 사고, 분쟁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당 담당자 또는 교구 조직위원회로 연락합니다.

② 공동 숙소

본당의 강당, 교리실, 유치원 시설 등을 공동 숙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본당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순례자를 맞이하는 '환대의 영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 ☑ 공간은 반드시 남/녀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 ☑ 최소 1.5m*2m의 공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 ☑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30세 이상과는 분리해 주십시오.
- ☑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화장지 구비)과 샤워실, 탈의실을 준비해 주십시오.
- ☑ 아침 식사는 본당 공동체에서 간단히 준비해 주십시오.
- ☑ 이외의 사항은 홈스테이 가정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2) 식사 가이드

① 검소한 환대

화려한 식사보다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 간 비교가 되지 않도록 본당에서 계획한 식단표를 준수합니다.

예 누룽지, 달걀, 김, 김밥, 라면, 토스트 등 간단한 식단 제공 - 추후 안내 및 교육 예정

※ 알레르기/채식주의 식단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회 참가 신청 시 확인)

② 간식

간식은 순례자들이 허기질 때 혹은 가정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제공과 마찬가지로 가정 간의 비교가 되지 않게 가벼운 다과 정도면 됩니다.

③ 기타 배려

순례자의 텀블러가 있을 경우, 얼음과 식수를 채워주세요.

순례자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는 교구(지구)에서 마련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경우, 간단한 저녁 식사나 간식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참고 사항

식사나 간식을 나눌 때 배불리 주시기보다 조금 적은 양을 제공해 주시고, 원하는 만큼 추가로 더 먹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베풀어주시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순례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교구대회 기간 일정

7월 29일(목) > 일치의 날 - 환영과 만남

지구별로 선정한 거점 본당에서 해외 순례자를 환영합니다. 배정된 교구와 순례자 수, 본당 도착 시간은 순례자 배정이 끝난 후 본당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7년 3월 이후로 예상) 단, 본당 도착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당으로 오는 해외 교구와 순례자 규모가 정해지면, 본당에서 홈스테이 신청서에 기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순례자들과 홈스테이 가정을 매칭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늦어도 27년 6월까지).

※ 홈스테이 가정은 본당에서 준비한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환영 프로그램 중에 각 본당에서는 홈스테이 가정과 순례자들의 만남을 진행합니다(예시 프로그램 추후 전달 예정). 환영 프로그램을 마친 후, 홈스테이 가정은 순례자들과 함께 귀가합니다. 또한, 매일 저녁 가정에 함께 모여 저녁 기도를 바치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홈스테이 가정과 순례자들은 자발적으로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Card, 보완 대체 의사소통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구 제공 예정).

※ 교구에서 홈스테이 가정에 환영 팸플과 교구대회 기념품(티셔츠, 평화 십자가 목주, 교구 손수건)을 미리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념품은 순례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 방법은 본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스테이 가정들은 반드시 순례자들에게 본당 주소, 홈스테이 가정의 주소와 연락처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금) > 평화와 찬미의 날 - 지구 단위 '평화 순례'

오전에는 지역별 거점으로 이동하여 주변 지역을 관광합니다. 점심은 지구 차원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함께 먹고 오후에는 지역별 안보 관광과 평화 기원 미사를 봉헌합니다. 일정이 종료되면 본당으로 복귀하여 신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7월 31일(토) > 신앙의 날 - 교구 단위 '순례자 미사와 부스 체험'

각 가정에서 아침을 먹고 춘천으로 이동하여 순례자들이 모두 춘천에 모입니다. 교구장 주교 주례의 미사를 다함께 바치고, 순례자들은 행사 장소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와 신앙을 체험합니다. 행사 종료 후 각 본당으로 복귀합니다.

8월 1일(주일) > 공동체의 날 - 본당 단위 '홈스테이 가정과 친교 이루기'

순례자들은 홈스테이 가정과 함께 본당에서 주일 미사에 참례한 후, 본당 공동체와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합니다. 이후에는 자율 여행과 휴식 시간을 가지며, 일정이 끝난 뒤에는 홈스테이 가정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며 교류합니다. 저녁에는 지구 또는 본당 차원의 포트락(Potluck) 파티를 열어 음식과 맥주, 음료를 나누며 친교를 이어갑니다.

8월 2일(월) > 파견의 날 - 환송

본당별 일정에 따라 홈스테이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한 후 순례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이후 홈스테이 가정은 순례자들이 출발 장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순례자들은 수송 계획에 따라 서울 본대회 장소로 이동합니다.

5. 이동

이동은 순례자를 마중 나가 처음으로 맞이하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순례자들과 함께 귀가하는 것입니다.



☑ 도보 이동

도보로 이동할 경우 대화와 소통의 시간으로 활용하며 긴장감을 완화하고 친근감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구역이나 반 인원이 함께 도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이동

긴 구간 이동 혹은 도보 이동 구간에 위험성이 있다면 차량으로 이동을 추천합니다. 차량 탑승 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홈스테이 가정 외 구역, 반, 단체 등에서 차량 이동으로 나누어 동반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지구별 인원 배정(안)

- ☑ 전체 순례자 1,000명을 6개 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 ☑ 배정은 단순한 균등 분배가 아니라, 교구 WYD 사무국에서 홈스테이 신청 현황과 순례팀(국가·교구), 성별, 특이사항(언어, 장애, 사목적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배정합니다.
- ☑ 지구별 배정 인원은 각 지구 단위 약 150명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지구에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구 WYD 사무국이 별도 운영팀을 구성하여 배정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7. 본당별 인원 배정(안)

- ☑ 지구별 배정이 완료되면, 각 지구에서 자체적으로 본당별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순례자를 배분합니다.
- ☑ 본당 배정 시에는 홈스테이 가능 인원, 공동숙소 운영 여부, 이동 편의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 ☑ 최종 본당 배정 결과는 지구에서 취합하여 교구 WYD 사무국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국과 협의를 통해 조정합니다.

8. 기타 안내

교구 대회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홈스테이 가정 신청이 완료되면, 홈스테이 가정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당 준비 자료는 완성되는 대로 배부될 예정이며, WYD 본당 대표 봉사자들의 연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9. QnA

Q. 행사에 참여자와 함께해야 하나요?

행사에 동참해도 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데려다 주거나, 교통편, 혹은 이동 방법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Q. 행사장에 참여자를 꼭 차로 데려다주어야 하나요?

차로 데려다 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교통편을 알려 주거나,
가까운 거리라면 길을 안내해 주어 걸어가게 해도 됩니다.

Q. 저희 집에는 침대가 없어요. 신청해도 될까요?

침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하나요?

영어를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번역기 어플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Q. 반려동물이 함께 살고 있는데 괜찮나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반려동물 기피 참여자는
반려동물이 없는 가정에 배정받습니다.

